

빈집 사들여 돌 굴뚝·돌 울타리 ... “인생 참맛 느껴요”



지난 1월 해남군 계곡면 사촌마을로 이주한 박득수(59)·강정옥(52)씨 부부가 마당에서 콩을 수확하고 있다.

해남과 강진의 경계에 위치한 해남군 계곡면 강절리 사촌마을, 82명에 불과한 주민들의 평균 나이가 65세를 넘어선 이 마을엔 요즘 활기가 넘쳐난다.

지난 1월 이곳으로 이주해 온 박득수(59)·강정옥(52)씨 부부 때문이다. 목포에 살던 박씨 부부는 평소 꿈꿔오던 전원 생활을 실천하기 위해 1년여의 준비기간과 영암, 강진, 해남지역 곳곳을 누빈 끝에 사촌마을에 등지를 틀었다.

지난 30년간 건축업에 종사해 온 박씨는 흑석산이 감싸고 있고, 넓은 농토가 집 앞에 펼쳐진 집터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

지난해 9월 우연한 기회에 만난 마을 주민의 소개로 대지 1천평(평당 3만 원)과 인야 1천평(평당 5천 원)을 포함한 빈집 터를 구입한 박씨는 곧바로 집 단장에 들어가 4개월 만에 입주했다.

박씨는 수년째 방치돼 온 18평짜리 빈집을 리모델링했다. 지붕 개량비로 100만 원, 주방 수리비로 250만 원, 도배와 보일러 시공 등에 150만

■ 해남 계곡면 사촌마을 박득수·강정옥씨 부부 마을 고장난 수도·보일러 도맡아 수리 콩·참깨 등 특산물 상품화 판매 계획

원 등 모두 500만 원을 투자했다. 건축업에 종사한 경험 덕분에 기본 재료만 구입해 모든 수리를 자신의 손으로 해냈다.

박씨의 화려한 손 기술을 눈여겨본 마을 주민들은 이후 고장난 수도 시설이며 보일러 등의 수리를 부탁했다.

박씨는 노인이 대부분인 주민들을 위해 집 수리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마을 주민들의 휴식처인 동네 입구 정자 주변에는 돌을 쌓아 공동 화장실도 직접 지었다.

마을 주민 임두재(62)씨는 “박씨의 손만 거치

면 멈춰있던 보일러도 썩성 돌아가는 등 노인들만 사는 마을에 복덩이가 들어왔다”며 활짝 웃었다.

박씨는 마을 사람을 돕는 틈틈이 자신의 집도 꾸렸다. 돌로 굴뚝을 쌓고, 마당 주변에 동백나무와 감나무 등을 심었다. 1천 평의 텃밭에는 콩, 깨, 채소 등 각종 농작물을 경작했다. 최근엔 콩 160kg을 수확해 도시에 사는 친척들에게 나눠주고, 일부는 된장과 메주를 만들 재료로 남겨뒀다.

울타리가 없는 집에는 100m 길이의 돌담도 쌓

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 돌담을 쌓기엔 역부족이었다. 돌담 쌓기에 한창이던 어느 날, 동네 주민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다. 박씨가 집을 비운 날에도 마을 주민들이 모여 돌담을 쌓았다. 이렇게 돌담 쌓기를 시작한 지 반년 만에 100m 길이의 돌담이 완성됐다.

박씨는 요즘 마당 가꾸기에 한창이다. 마당에 잔디를 깔고, 소나무와 각종 야생화를 심을 계획이다.

박씨 부부는 “인생의 참맛을 이제야 느끼고 있다”며 행복한 모습이다.

박씨는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맡고 일어나는 느낌은 그 무엇보다도 바랄 수 없는 행복”이라면서 “특히 마을 주민들의 인심이 넉넉해 부모님의 품처럼 편안하다”고 말했다.

박씨의 앞으로 목표는 주민들과 함께 수익 사업을 해 보는 것. 사촌마을의 특산물인 콩과 참깨 등을 상품화해 직접 판매하고, 아름다운 마을 경관을 바탕으로 민박사업 등도 해볼 생각이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집엔 돌담·나무 울타리 시멘트 벽엔 벽화 그려

■ 사촌마을 주민들 마을 가꾸기

해남군 계곡면 사촌마을 주민들은 시멘트 벽을 거부한다. 양 증맞은 돌담만 쌓는다.

지난 2004년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를 결의한 사촌마을 주민들은 집 주변을 돌담과 나무울타리로 담을 두르고, 예전에 지어진 시멘트 벽에는 농촌의 이미지를 담은 벽화를 그려넣고 있다.

사촌마을의 마을 가꾸기는 마을입구 정자 숲을 가꾸는데서 출발했다. 4년 전만 해도 마을 입구의 수백 년 된 정자 나무 주변은 각종 쓰레기가 가득 쌓여있었다고 한다.

주민들은 마을 회관에 모여 우선 정자 나무 주변부터 정화 작업을 시작했다. 주민들의 단합으로 마을 입구가 깨끗하게 변하자, 이번에는 마을 전체 가꾸기에 힘을 모았다. 농번기에도 틈틈이 모여 돌담을 쌓고, 야생화도 심었다.

주민 82명 중 60세 이상이 80%에 달하는 노인 마을이지만, 일주일에 3~4번씩 마을 회관에 모여 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고, 결정된 사업은 모든 주민이 동참했다.

마을 가꾸기 기금은 마을 공동담(마을 소유 논) 경작으로 조성했다. 80세 이상 노인들도 자신의 차려가 오면 공동담을 경작하고, 수익금은 고스란히 마을 가꾸기에 사용하고 있다.

올해에는 정부에서 추진한 ‘참 살기 좋은 마을’로 선정돼 2천만 원의 예산도 지원받았다.

주민들의 이 같은 열정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이강일 대불대학교수는 골목 벽화 작업을 도와주고 있고, 광주에서 도로 안전 시설물을 생산하는 (주)광민기업은 마을 입구에 교통 안전 시설물을 무료로 설치해 줬다.

마을이 정비되면서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평당 2만 원에 불과하던 땅값도 5만 원 이상으로 경증 뛰었다고 한다.



박득수(59)·강정옥(52)씨 부부가 6개월여에 걸쳐 100m에 이르는 집 울타리에 돌담을 쌓고 있다.

아이엘리시아 www.ielysia.com

상품권 판매, 돌잔치, 각종 모임 및 행사(100석, 150석, 200석)

신상음식 소개

062) 671-1199

남성 헤어 기능장호 **大山프리모남녀기발**

타사제품 보상판매 **프리모**

5RS-1000 '사람세상' 발행

가발

초슬림!!

귀여운 스타일링,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문의처: 02-513-5258, 02-513-5259

분당점: 02-471-9071-8330